

파이널 퀸 신지애... 우승 같은 준우승

US여자 오픈 마지막 날 4언더파 베테랑 투혼
투어 2년 차 코푸즈 첫 우승 감격... 엄마가 한국인



일본 여자 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베테랑 신지애가 4년 만에 출전한 여자골프 최고봉인 제78회 US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총상금 1100만 달러 약 143억 원)에서 자신의 가치를 유감없이 떨쳤다.



신지애는 이날 전반 6번 홀(파5)과 8번 홀(파4) 버디를 슈아내며 선두권을 뒤쫓았다. 10번 홀(파4) 보기와 11번 홀(파4) 버

디를 맞바꾼 뒤 14번 홀(파5)에서 3m 남짓한 버디 퍼트를 넣어 3위권으로 도약했다.

16번 홀(파4)에선 6m 넘는 까다로운 파세이브에 성공하며 위기를 넘긴 신지애는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공동 2위가 되는 버디 퍼트를 넣은 뒤 주먹을 불끈 쥐며 자축했다. 신지애는 “페블비치에서 나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었기에 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렇게 됐다. 우승하지 못했지만 챔피언이 된 것처럼 기쁘다”고 말했다.

LPGA 투어 2년차인 엘리스 코푸즈(미국·사진)는 메이저대회에서 투어 첫 우승을 달성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코푸즈는 아버지가 필리핀 출신, 어머니는 한국인이다. 이 대회 전까지 지난해 8월 ISPS 한타 월드 인비테이셔널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었던 그는 역대 여자 골프 대회 최다 상금이 걸린 US오픈을 제패하며 상금 200만 달러를 거머쥐었다.

신지애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파 72·6424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6언더파 282타를 기록, 찰리 힐(잉글랜드)과 공동 2위에 올랐다. 정상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다. 상금은 96만9231달러(약 12억6100만 원)다. 신지애는 2018년 2월 ISPS 한타 호주여자오픈 공동 7위 이후 5년여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 호주에서 열리는 LPGA투어에만 가끔 나섰던 그는 2019년 5월 열린 US여자오픈(옛 탈락) 이후 모처럼 미국에서 열린 대회에 출전했다. 지난날 세상을 떠난 할머니에게 세계 최고 코스 중 하나로 꼽히는 페블비치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었다고 밝힌 그는 난코스에서 여전한 기량을 확인했다.

3라운드 선두에 5타 뒤진 5위에 자리한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신지애가 10일(한국시간) 제78회 US여자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멋진 샷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캄보디아 맥’ 피아비, LPBA 최다 통산 6승

상금은 고국에 세운 학교와 불우 이웃 돕기에 쓰기로



캄보디아 출신 스롱 피아비(33)가 프로당구 여섯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여자부 LPBA 최다

우승 역사를 썼다. 스롱은 9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당구 2023-24시즌 2차 투어 ‘실크로드&안산 PBA-LPBA 챔피언십’ LPBA 결승전에서 용현지와 폴세트 점진 끝에 세트 점수 4-3(6-11 11-3 11-45-11 11-7

7-11 9-2)으로 승리했다. 상금 2000만 원. 20세이던 2010년 충북 청주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던 김만식 씨와 국제결혼하며 한국으로 건너온 스롱은 누적 상금 2억 1952만 원을 기록해 ‘코리아 드림’을 일궈

가고 있다. ‘캄보디아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그가 벌어들이는 상금은 고국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우고 불우이웃 돕기에 쓰이기 때문이다.



스롱 피아비가 9일 열린 LPBA 2차 투어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PBA

이로써 스롱은 2020~21시즌 프로 무대에 뛰어든 뒤 20개 대회 만에 여섯 차례 정상에 올라 명실상부한 LPBA 최강자로 등극했다.

직전 시즌 왕중왕전 SK렌터카 월드챔피언십 우승 이후 4개월 만에 정상을 다시 정복한 그는 나란히 5회 우승을 달리던 김가영, 임정수를 제치고 다승 1위가 됐다. 반면 두 번째로 결승에 올라 프로 첫 승에 도전했던 용현지는 이번에도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두 선수는 최종 7세

트에서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쳤다. 스롱은 첫 이닝 5득점으로 5-2로 성큼 앞서간 뒤 공타에 그친 용현지로부터 공격권을 넘겨받아 2이닝에 남은 4득점을 채워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스롱은 경기 후 “비시즌 많은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제 당분간 당구만 더 연습할 예정이다. 제 목표는 더 많은 사람이 당구를 보고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스롱은 “대회에 다니느라 한두 달에 한번씩 집에 갈 때도 많다. 남편은 집에 늘 혼자 있는데 들어갈 때마다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요리도 해준다. 당구에만 집중하게 해 준다”며 고마워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
14일 열어... 200개국 출전



‘살아 있는 전설’ 케이트 리데키(26·미국)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인

통산 20번째 금메달 획득에 나선다.

도쿄 올림픽 2관왕 아리안 티트머스(22·호주), 라이징 스타 서머 매킨토시(16·캐나다)의 도전이 거세 리데키의 여정은 더 흥미롭다.

제20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4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막한다. 약 200개국에서 24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6개 종목에서 75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14일부터 22일까지 후쿠오카현 수영장에서 다이빙 경기(금메달 13개)를 치르고 같은 기간 마린 메세 후쿠오카 호텔에서 화려한 아티스틱 스위밍 경기(금메달 11개)가 펼쳐진다.

가장 주목받는 경쟁 경기는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남자 경영에서는 세계선수권 금메달 15개를 보유한 케일럼 드레슬(26·미국)과 8개 금메달을 따낸 애덤 피터(27·영국), 접영의 크리스토프 밀라크(23·헝가리)가 불참해 팬들의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여자 경영에서는 살아 있는 전설 리데키에게 티트머스와 매킨토시가 도전하는 구도가 완성됐다.

리데키는 후쿠오카에서 자유형 200m, 400m, 800m, 1500m에 출전한다. 자유형 800m와 1500m에서는 리데키의 우승이 점쳐진다.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종목은 여자 자유형 400m다. 리데키, 티트머스, 매킨토시의 경쟁이 흥미롭다. 수영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종목이다. 이들 3명은 이 종목 전-현 세계기록 보유자이기도 하다.

남자 경영에서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선수들이 새로운 황제 등극을 노린다. 지난해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49년 만의 세계선수권 자유형 100m와 200m 석권이라는 새 역사를 쓴 다비드 포포비치(18·루마니아)는 후쿠오카에서도 두 종목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힌다. 하지만 200m에서 부다페스트 대회 2위이자 올 시즌 세계 랭킹 1위(1분44초6)인 황선우(20·강원도청)가 포포비치의 2연패 저지에 나선다.

김명준 기자 mjkim@skyedaily.com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